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이랜텍 (054210)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IT부품 강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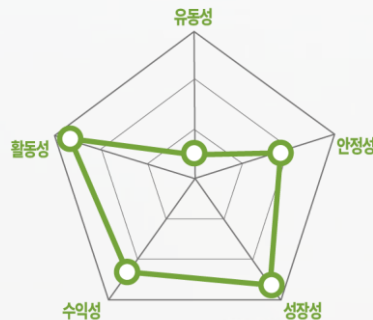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이랜텍은 '삼일정공사'라는 사명으로 1978년 설립. 스마트폰 케이스, 소형 배터리팩 등 다양한 IT부품 분야에서 삼성그룹과 함께 동반 성장
- 투자포인트는 1)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 성장 기대, 2)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 안정적 성장 기대
- 리스크 요인은 고객사 편중
- 이랜텍은 2026F PER 7.3배로 거래 중. 4Q26 예정된 전기차용 배터리팩의 첫 공급 개시나 ESS용 BMS, ESS 배터리모듈팩 사업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시장 관심도는 상승 가능. 또한 중장기적으로 서빙·요양·AMR용 로봇 관련 배터리팩 고객사 및 물량 확대가 진행된다면 신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 가능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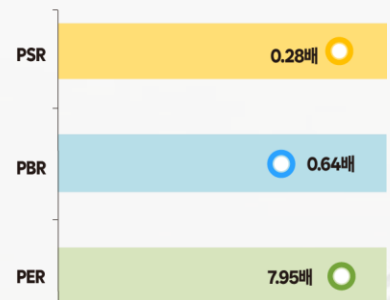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이랜텍은 휴대폰, 가전 등 각종 IT기기에 공급되는 부품 관련 강소기업

이랜텍은 40년 이상의 오랜 업력을 보유한 IT부품 기업.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제품별 매출비 중은 휴대폰용 케이스 39.6%, 모바일폰 배터리팩 9.6%, 전자담배 디바이스 27.2%, 전자담배 카트리지 2.5%, ESS 배터리팩 0.03%(2024년엔 1.8%였음), 충전기 1.8%, 전동공구 배터리팩 2.0%, 기타 17.4%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상위 대형 스마트폰 업체의 강세 지속 전망

2026F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메모리 공급 부족과 부품 가격 상승으로 출하량 감소 구간에 진입할 전망. 출하량 감소에도 평균판매가격 상승으로 전체 시장 매출은 증가 예상. 메모리 조달력과 가격 결정력 갖춘 대형 스마트폰 업체 중심으로 점유율이 재편될 전망. 스마트폰 케이스 산업은 세트사별로 분리된 협력사 풀 구조이며, 삼성전자의 인도 생산 확대로 인해 인도 거점 보유 3개 케이스 협력사(이랜텍, 모베이스, 삼광)의 수주 기회 확대 전망

견조한 실적 시현과 신제품이 기대됨에도 저평가

2025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7,532억 원(+35.5% YoY), 432억 원(+168.1% YoY) 시현. 2024년 부진했던 전자담배 디바이스 사업과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 실적이 회복된 점과 충전기 사업이 오랜만에 성장한 점 등에 기인. 2026F 매출액 8,750억 원(+16.2% YoY), 영업이익 541억 원(+25.2% YoY) 전망. 전사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성장이 동반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부 제품믹스도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견조한 실적 시현과 신제품(전기차용 배터리팩, ESS용 BMS, 로봇용 배터리팩)이 기대됨에도 저평가 상황임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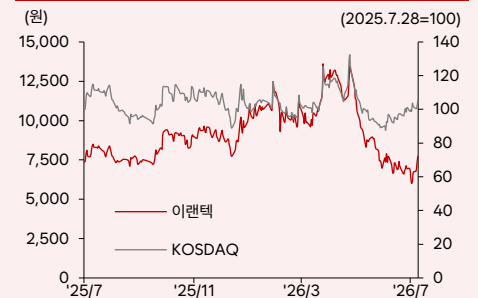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9,979	7,512	5,560	7,532	8,750
YoY(%)	31.0	-24.7	-26.0	35.5	16.2
영업이익(억원)	798	304	161	432	541
OP 마진(%)	8.0	4.1	2.9	5.7	6.2
지배주주순이익(억원)	547	167	4	267	316
EPS(원)	1,860	563	2	903	1,071
YoY(%)	46.5	-69.7	-99.7	53,243.0	18.7
PER(배)	61	177	3,014.3	101	7.3
PSR(배)	0.3	0.4	0.3	0.4	0.3
EV/EBITDA(배)	3.9	6.9	6.9	6.1	4.5
PBR(배)	1.3	1.1	0.5	0.9	0.7
ROE(%)	23.0	6.3	0.1	9.0	9.7
배당수익률(%)	1.3	0.8	1.6	1.1	1.3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가(08/06)	7,770원
52주 최고가	13,600원
52주 최저가	6,020원
KOSDAQ(08/06)	801.67p
자본금	146억원
시가총액	1,965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5백만주
평균거래량(60일)	26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26억원
외국인지분율	70.1%
주요주주	이해성 외 9인 33.14%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60	-24.7	-76
상대주가	120	15	-74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 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 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 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이랜텍은 1978년 설립된 휴대폰 부품 위주 IT부품 기업

1978년 설립되어 2002년 코스닥에 상장한 IT부품 기업

이랜텍은 1978년 '삼일정공사'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1982년 회사를 법인으로 정식 전환하며 사명을 '대희전자공업(주)'로 변경했다. 수원시 원천동에 터를 잡은 동사는 1985년 기업은행으로부터 우량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0년부터 동사는 해외 거점을 단계적으로 열기 시작했다. 1990년 8월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시에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했고, 1993년 멕시코 법인을 열었다. 이후 1996년 중국 청도에도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하였다.

2000~2014년 기간은 이랜텍에게 있어서는 성장기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4월 동사는 사명을 '(주)이랜텍'으로 변경하고 6월 인도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하였다. 같은 해 11월 5천만불 수출의 탑 및 동탑산업훈장도 수상했다. 2001년에는 중국 천진에 법인을 설립했고,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하였다. 이후에도 해외 거점은 지속적으로 확대했는데, 2006년에 중국 소주 법인을, 2008년에 중국 해주 법인을, 2010년에 베트남 하노이 법인을, 2012년에 중국 수녕 법인을 잇따라 설립했다. 이러한 해외 거점 성장은 주 고객인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주효했다. 2014년 삼성전자로부터 동사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현재 기간은 이랜텍에게 성장 가속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베트남, 인도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동사의 성장을 가속시켰다. 2015년에 베트남 호치민 법인을, 2017년 베트남 EVE(하노이 지역) 법인을, 2019년 인도 EPI(G-Noida 지역) 법인을 설립했다. 이랜텍은 국내에도 신규 공장 설립을 이어갔다. 2021년 동탄 2공장을, 2024년 용인 남사 신공장을 설립하였다. 한편, 경영진 체계도 변화가 있었다. 2018년 사장으로 취임한 이해성 당시 사장은 2022년 각자 대표 이사로 선임되었다.

2023, 2025년에는 다수의 수상이 이어졌다. 2023년 7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12월 산자부로부터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부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2025년 동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고, 삼성전자로부터 우수협력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종합하여 볼 때 이랜텍은 1978년 이래 IT부품 전문기업으로, 고객의 성장과 동반하여 성장해왔다. 특히 휴대폰 케이스, 소형 배터리팩 분야에서 삼성전자, 삼성SDI와 함께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신사업인 EV/로봇용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 ESS용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사업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성장시켜 사업 분야를 넓히는 차별화된 성장을 도모할 전망이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7개사 보유

이랜텍은 1Q26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7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7개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동사는 각 종속회사에 대해 모두 지분 100.0%를 소유 중이다. 이 외에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주)이랜시스(지분율 20.77%), 시모스미디어텍(지분율 30.39%), 노틸러스 오픈이노베이션 펀드1호(지분율 34.09%)를 보유하고 있다.

이랜텍 연결대상 종속회사 7개사 현황

(단위: 억 원)

기업명	설립일	지분율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이랜텍 말레이시아	1990.08.01	100%	하네스, 전자담배 제조, 판매	826
이랜텍(소주) 전자 유한공사	2006.01.13	100%	전자부품 제조, 판매	16
이랜텍 인도	2006.02.08	100%	휴대폰용 케이스, 충전기 제조, 판매	1,401
이랜텍 베트남비나	2010.11.23	100%	휴대폰용 케이스 제조, 판매	919
이랜텍 호치민비나	2015.09.25	100%	평선보드, 사출물 제조, 판매	393
이랜텍 베트남에너지	2017.11.28	100%	중소형 배터리팩 제조, 판매	420
이랜텍 파워인디아	2019.12.20	100%	중대형 배터리팩 제조, 판매	412

주1: 1Q26말 기준, 주2: 각 종속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5년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서비스

2025년 이랜텍 매출은 8개 제품 부문으로 구분

이랜텍은 휴대폰용 부품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 중이다. 이랜텍 매출액은 2025년 기준으로 8개 제품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제품별 매출비중은 휴대폰용 케이스 39.6%, 모바일폰 배터리팩 9.6%, 전자담배 디바이스 27.2%, 전자담배 카트리지 2.5%, ESS 배터리팩 0.03%(2024년엔 1.8%였음), 충전기 1.8%, 전동공구 배터리팩 2.0%, 기타 17.4%이다. 각 제품을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휴대폰용 케이스는 동사의 주력 사업으로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

1) 휴대폰용 케이스(39.6%)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은 동사의 주력 사업으로, 휴대폰용 외부 케이스(Case)에 도장, 증착 등 2차 공정을 처리한 제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한다. 이랜텍은 케이스 금형 설계 관련하여 자체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재질 및 Color 구현이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을 확보했다.

휴대폰용 케이스



자료: 이랜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모바일폰 배터리팩은 삼성SDI
Cell을 공급받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로 납품

2) 모바일폰 배터리팩(9.6%)

모바일폰용 Battery Pack은 Lithium Ion 또는 Polymer Cell에 과충전방지, 과방전방지, 과전류차단 등 기능을 가진 PCM(Protection Circuit Module) 회로를 부착한 제품이다. 이랜텍은 Battery 제품별로 최적화된 PCM 회로를 자체 설계 및 양산하고 있으며, 자동화 조립 라인 운영과 자동 검사 설비 구축을 통해 균일화된 품질을 확보하였다. 삼성SDI Cell을 공급받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로 납품하는 구조이다.

모바일폰 배터리팩



자료: 이랜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자담배 디바이스는 KT&G향
중심으로 글로벌 모델용 공급

3) 전자담배 디바이스(27.2%)

이랜텍은 궤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고객사는 KT&G이고, 대부분 글로벌 모델용을 공급 중이다. 전자담배 디바이스 제품은 히팅 안정성과 히팅 시간 단축 여부, 장기간 배터리 충전 및 빠른 충전 가능 여부, 디자인 심미성 등이 요구된다. KT&G 내에서 전자담배 디바이스 공급사는 동사와 아이티엠반도체, 파트론 3사의 납품 체제이다. 전자담배 디바이스는 모델별로 판매 부침이 있고 제품 라인업이 다양한 특징이 있다.

전자담배 디바이스 (III AIBLE 3.0, III Solid DUAL, III Solid 3.0)



자료: 이랜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경쟁사가
주도하고 있으나 물량 확대 여지
보유

4) 전자담배 카트리지(2.5%)

카트리지는 하이브리드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 니코틴을 담고 있는 용기이다. KT&G 내에서 이 분야는 경쟁사인 아이티엠반도체가 주도 중이나, 이랜텍도 점진적으로 관련 물량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ESS 배터리팩은
LG에너지솔루션 Cell을 채용하여
LG전자향으로 공급

5) ESS(Energy Storage System) 배터리팩(0.03%, 2024년 기준 1.8%)

동 제품은 가정용 ESS Battery Pack으로, LG에너지솔루션 Cell을 채용하여 LG전자향으로 공급하고 있다.

ESS 배터리팩



자료: 이랜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충전기는 삼성전자향으로 전량
공급

6) 충전기(1.8%)

동사 충전기는 휴대폰용 충전기로 무선충전 제품도 포함한다. 제품 수명 및 신뢰성이 주요 관건이다. 이랜텍의 충전기 등은 안정된 품질로 고객에게 인정받고 있다. 충전기 등은 주로 삼성전자향으로 공급하고 있다.

충전기



자료: 이랜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동공구 배터리팩은 삼성SDI
셀을 채용해 전동공구 전문기업에
공급

7) 전동공구 배터리팩(2.0%)

전동공구 배터리팩은 Cell 전압 Monitoring과 온도 제어, 과충전/과방전 제어 등이 요구되는 제품 특성이다. 또한 제품 특성상 외부 환경에 강한 외장 Case 설계도 중요하다(진동, 충격 대응). 삼성SDI Cell을 채용하여 전동공구 전문기업들에게 공급된다.

전동공구 배터리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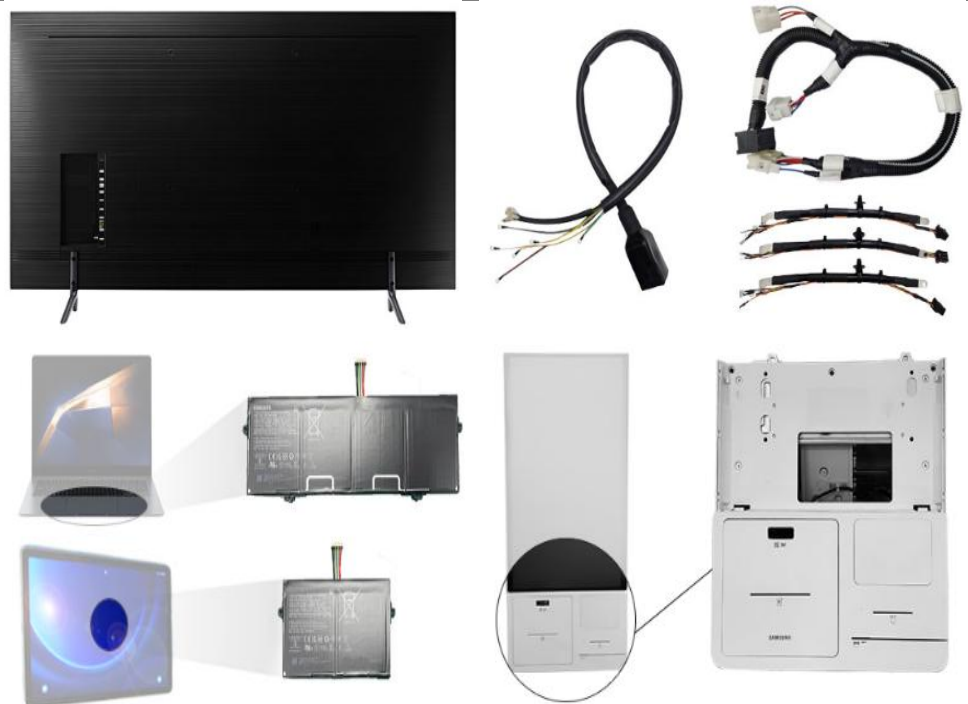
자료: 이랜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타는 평선보드, TV 케이스,
와이어 하네스, 노트북-태블릿
배터리팩, BMS 등으로 구성

8) 기타(17.4%)

기타는 Function Board(TV 등의 터치식 작동부 부품), TV 케이스, 와이어 하네스, 노트북 및 태블릿 배터리팩, 키오스크,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등이다.

TV 케이스, 와이어 하네스, 노트북 및 태블릿 배터리팩, 키오스크



자료: 이랜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고객은 글로벌 IT기기 관련 기업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와 삼성SDI,
KT&G 등 글로벌
휴대폰·IT기기·전자담배 기업

동사는 휴대폰 관련 및 전자담배 관련 부품 위주로 외장 케이스, 배터리팩, 전자담배 디바이스 등을 개발 및 제조하여 글로벌 휴대폰, 각종 IT기기, 전자담배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동사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삼성SDI, KT&G, 기타 IT 기업들이다. 2025년 연간 기준으로 주요 고객 비중을 살펴보면 전자 매출액 중 삼성전자 및 삼성SDI향이 약 58%이고, KT&G향 매출이 약 29%이다. 향후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 성장이 기대대로 진행될 시 고객군은 완성차, 로봇 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최대주주 등은 이해성 대표이사 외 9인

최대주주는 이해성 대표이사로
지분 17.33%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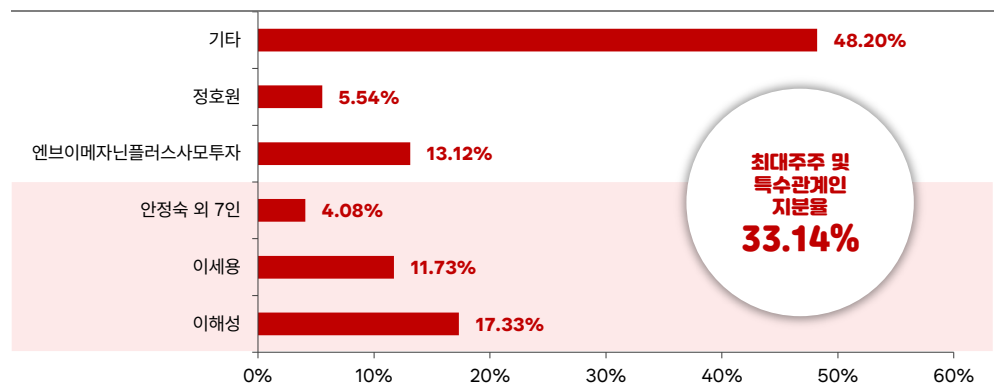
이랜텍 최대주주는 이해성 대표이사로 이랜텍 지분 17.33%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은 이해성 대표이사 외 9인으로, 지분율은 33.14%이다(1Q26 사업보고서 기준).

이랜텍은 이해성/이세용 각자 대표이사 체제이다.

이세용 대표이사(1949년생)는 이랜텍 창업자이다. 경희대학교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이후 1978년 현재 이랜텍 전신인 삼일정공사를 설립했다.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이어오고 있다.

이해성 대표이사는 이세용 대표이사의 아들로 1981년생이다. 그는 토론토대학교를 졸업하고 기획실장으로 2016년부터 이랜텍에 근무하였으며, 2022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025년 5월 부친인 이세용 대표이사로부터 이랜텍 250만주를 증여받아 이랜텍 단독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이랜텍 주주 현황



주: 1Q26 기준, 자료: 이랜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글로벌 스마트폰 산업 현황

**2026F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메모리 공급 부족과 부품 가격
상승으로 출하량 감소 구간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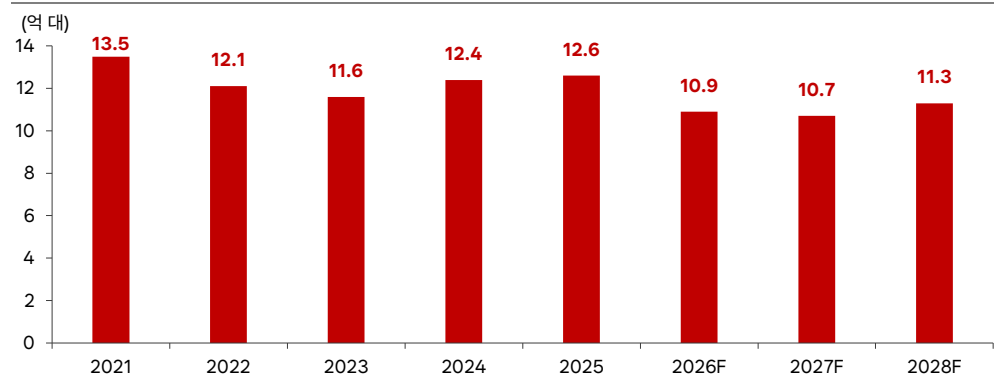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000년대 후반 터치스크린 기반 제품이 보급된 이후 이동통신 세대 전환과 신흥국 보급 확대를 바탕으로 견조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신규 수요보다 교체 수요가 시장을 지지하는 성숙기에 진입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1년 13.5억 대에서 2022년 12.1억 대, 2023년 11.6억 대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교체 수요가 소진된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었고, 제품 성능 향상으로 교체주기도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유통재고 정상화와 신흥국 수요 회복 등으로 2024년 출하량은 12.4억 대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약 12.6억 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26년에는 메모리 공급 부족과 부품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3.9% 감소한 10.9억 대에 그칠 전망이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메모리 업체가 한정된 생산능력을 HBM과 서버용 제품에 우선 배정하면서 스마트폰용 메모리의 공급 여력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며 세트 업체의 원가 부담이 증가했으며, 국제유가, 운송비 등 상승세도 추가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9,38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으며, 메모리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과 생산계획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이후 감소폭은 중저가 스마트폰 제품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ID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출하량 감소에도 평균판매가격
상승으로 시장 매출은 증가,
메모리 조달력과 가격 결정력 갖춘
대형 업체 중심으로 점유율 재편**

전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감소하는 반면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평균판매가격은 2025년 약 456달러에서 2026년 550달러로 높아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더라도 시장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판매가격 상승은 부품 원가의 판매가 전가, 가격대별 출하 구성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저가 제품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저가 제품은 판매가격 대비 메모리 원가 비중이 높은 반면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커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수록 저가 제품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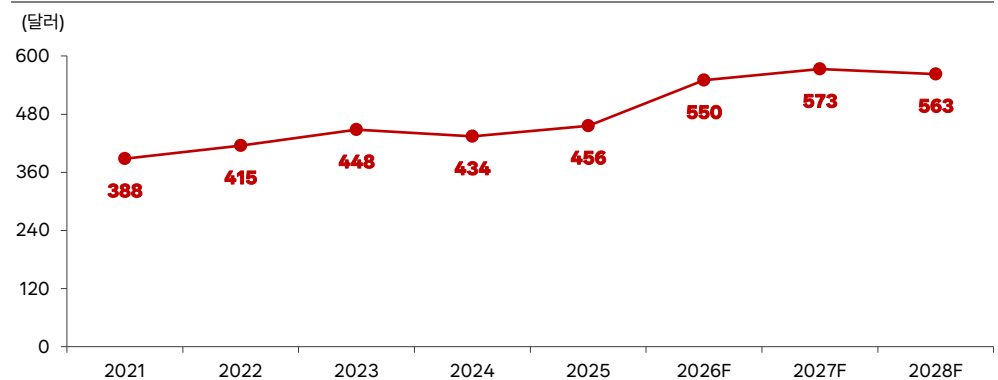
메모리 조달 여력도 스마트폰 업체별로 다르다. 구매 규모가 크고 공급업체와의 장기 거래관계를 확보한 대형 세트 업체는 필요한 메모리 물량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중소 세트 업체는 조달 물량과 가격 조건에서 불리하다. 특히 저가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중소 업체의 경우는 부품 조달과 수익성 확보 모두 제약을 받아 판매량 축소 압력이 커지고 있다. 반면, 대형 세트 업체는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인상된 가격대에서도 판매를 유지할 수 있고, 중소 업체가 축소할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생산능력과 유통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시장에서 중소 세트 업체와 저가 제품의 출하량은 감소하고, 대형 세트 업체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출하량 전망에서 확인된다. 저가 제품과 중소 브랜드의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출하 감소가 클 전망이다.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동·아프리카에서 23%, 중·동유럽에서 19%,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에서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역도 저가 안드로이드 업체 부진 등으로 1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Q26 출하량의 60%가 800달러 이상 제품이었던 북미의 감소폭은 6.3%에 그칠 전망이다.

운영체제상으로는 안드로이드 출하량이 20% 감소하여 시장 전체 감소율 13.9%를 크게 상회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진영에는 저가 제품 및 신흥국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반면 메모리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프리미엄 비중이 높은 대형 업체는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IDC는 2026년 iOS 점유율이 22%로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고 제시했으며,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메모리 물량 확보와 갤럭시 S26 라인업 강화, 중가대에서의 공격적 포지셔닝 등을 근거로 중소 브랜드의 공급 축소분을 흡수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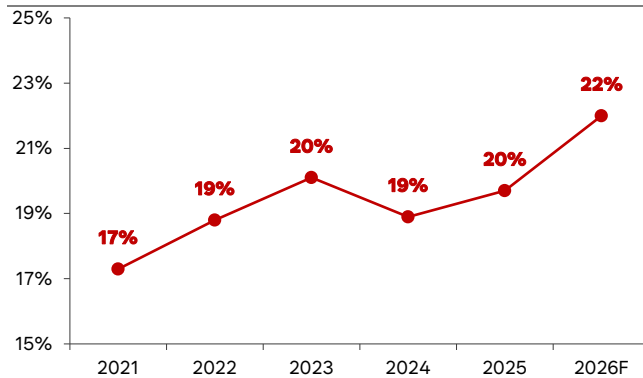
이처럼 2026년 스마트폰 시장은 저가 제품, 중소 브랜드의 출하량이 감소하는 반면, 메모리 조달 역량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대형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품 업체들의 실적도 고객사의 점유율과 자사의 공급 모델 및 배분 비중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이다. 특히 점유율이 상승하는 대형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한 부품사는 신규 모델 수주와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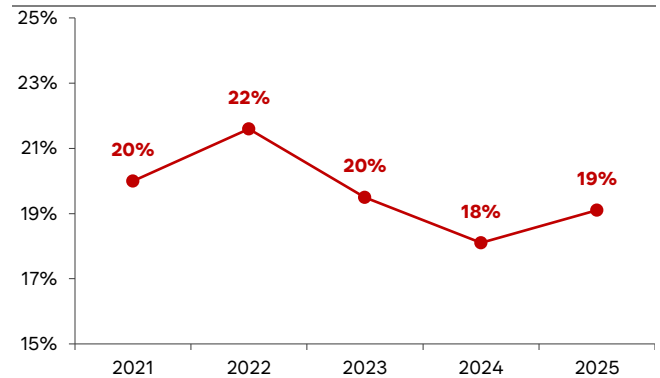
자료: ID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애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추이 및 전망



자료: ID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ID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마트폰 케이스 산업 현황

**케이스 산업은 세트사별로 분리된
협력사 풀 구조, 삼성전자의 인도
생산 확대로 인도 거점 보유 3사의
수주 기회 확대 전망**

스마트폰 케이스는 스마트폰의 외관을 구성하고 내부 부품을 고정하는 기구물이다. 케이스 부품사는 후면 커버와 프레임 등을 소재에 따라 사출 또는 금속 가공 공정으로 성형한 뒤 조립하여 세트 고객 생산라인에 공급한다.

케이스는 제품 외관과 조립 품질을 좌우하므로 세트 고객은 케이스 협력사에 장기간의 품질 검증과 양산 이력 등을 요구한다. 또한 부피가 큰 데 비해 대당 단가가 비교적 낮아 운송비 부담이 크고, 세트 고객의 생산계획 변경이 있을 시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케이스 부품사가 특정 세트 고객의 공급망에 편입되어 있어야 사업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인종은 세트 고객별로 별도로 취득해야 하며, 생산거점 역시 해당 세트 고객의 조립공장 배치에 맞추어 구축해야 한다. 그 결과 케이스 산업은 다수의 부품사가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세트 고객별로 분리된 케이스 협력사 풀이 존재하는 구조로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케이스 부품사의 사업 기반은 전방 세트 고객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세트 고객은 부품 공급 차질 등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동일 모델의 케이스를 복수 협력사에서 조달하고 모델별로 물량을 나누어 부품사에 배정하므로, 경쟁은 동일 세트 고객의 협력사 풀 안에서 물량 배분을 두고 이루어진다. 따라서 케이스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 총량이 아니라 주요 세트 고객별 협력사 체제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케이스 업체는 대부분 삼성전자 공급망에 편입되어 있어, 국내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의 협력사 체제와 생산기지 배치가 곧 케이스 산업구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케이스 협력사 풀은 인탑스, 이랜텍, 모베이스와 비상장사인 삼광 등 4개사로 구성되며,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는 4개사가 모두 공급하는 반면 인도 법인에는 인탑스를 제외한 3개사가 공급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공급사 구성이 달라지는 것은 인접 생산 요건 등이 지역 단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품사가 특정 세트사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 생산거점이 없으면 물량을 배정받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세트사 생산기지의 이전은 지역별 수주 구도를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는 관세와 현지 조달 요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생산 비중을 축소하고 인도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생산물량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되면 지역별 발주 규모 자체가 이동하므로 인도 거점 보유 부품사의 수주 가능 물량이 확대된다. 인도 생산법인인 3개사로, 4개사가 공급하는 베트남보다 협력사 풀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이랜텍을 비롯해 인도 생산거점을 보유한 3사는 삼성전자의 인도 생산 확대 과정에서 추가 물량을 배정받을 기회가 커질 전망이다.

3 글로벌 배터리팩 산업 현황

**배터리팩은 전지 셀에
배터리관리시스템·배선·기구·열관리
부품을 결합한 조립체로, 회로·기구
설계와 안전성 검증이 핵심**

배터리팩은 다수의 전지 셀(Cell)을 직·병렬로 연결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배선, 기구·열관리 부품을 결합하여 적용 기기가 요구하는 전압과 용량을 구현한 조립체이다. 전지 셀은 정해진 전압과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사양에 맞춰 여러 개의 전지 셀을 연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셀별 성능 편차가 누적되면 일부 셀에 부하와 발열이 집중될 수 있어, 셀 상태를 감시하고 조정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이 함께 적용된다. 배터리관리시스템은 셀의 전압과 전류, 온도를 감시하여 과충전, 과방전을 차단하고 셀 간 편차를 조정한다. 여기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셀을 보호하는 기구 부품과 열을 배출하는 부품, 전력을 전달하는 배선이 결합된다. 따라서 배터리팩 생산은 셀을 단순 조립하는 작업이 아니라 적용 기기의 출력과 형상, 사용 환경에 맞춰 회로와 기구를 설계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배터리팩 구성 요소 및 주요 역할

구성 요소	주요 역할	설계·생산 시 고려사항
전지 셀	전기에너지 저장	요구 전압·용량에 따른 직병렬 구성, 셀 간 성능 편차
배터리관리시스템	전압·전류·온도 감시, 과충전·과방전 차단, 셀 균형 조정	셀 특성과 사용 환경에 맞춘 제어 방식, 안전성 검증
배선	셀과 회로 간 전력 및 신호 전달	허용 전류, 절연, 진동·충격에 대한 내구성
기구 부품	셀 고정 및 외부 충격 방지	적용 기기의 크기와 형상, 내구성
열관리 부품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배출	발열량, 냉각 방식, 온도 균일성
조립 검사	각 구성 요소의 결합 및 완제품 검증	조립 정밀도, 수율, 양산 품질의 일관성

자료: 산업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배터리팩은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공급되며 설계 능력과
용도별 인증·양산 이력이
수주 가능 범위를 결정**

배터리팩의 사양은 적용 제품마다 달라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되어 공급된다. 스마트폰과 전동공구, 의료기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는 요구되는 전압과 출력, 크기, 방열 조건, 안전 규격 등이 상이하다. 이에 팩 업체는 고객사와 제품 사양을 협의한 뒤 회로·기구 설계와 시제품 검증, 인증 및 고객 승인을 거쳐 양산에 진입한다. 개발 절차가 개별 프로젝트별로 반복되는 만큼 관련 매출은 전체 배터리 시장보다 참여 프로젝트 수와 적용 모델의 실생산량, 양산 시점 등에 영향을 받는다.

개별 설계와 인증 절차는 신규 업체의 진입도 제약한다. 배터리팩의 셀 편차나 회로 이상은 성능 저하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고객사는 배터리팩 공급사의 설계 능력과 품질관리 이력을 사전에 검증한다. 특히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의료기기는 인증 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대량양산 이후에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배터리관리 시스템과 기구 설계 능력, 용도별 인증 및 양산 이력이 수주 가능한 제품의 범위를 결정한다.

**소형 팩 수요는 정보기기 출하량에
연동, 중대형 팩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를 중심으로
수요 기반 확대**

배터리팩은 적용 기기의 전압과 용량에 따라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된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적용되는 소형 팩도 보호회로 설계와 품질관리가 필요하지만, 셀 수와 전압이 낮아 대량생산 과정의 원가 경쟁력 확보와 품질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반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중대형 팩은 용량이 커질수록 셀 간 편차 관리와 절연·차단, 열관리 설계가 복잡해진다. 이에 중대형 팩에서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설계와 안전 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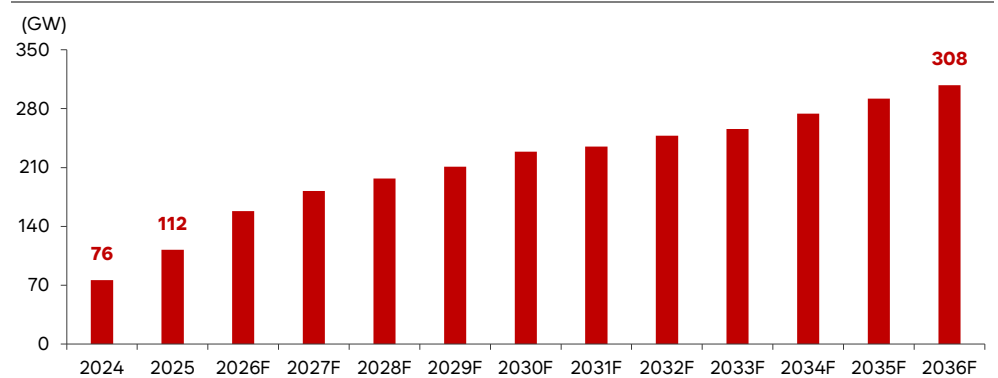
소형 팩의 주요 전방 시장인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배터리 탑재가 보편화되어 관련 수요는 완제품 출하량에 연동된다. 중대형 팩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차량당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보완하는 저장설비에도 적용된다. 이에 신규 적용처가 제한적인 소형과 달리 중대형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를 중심으로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2025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탑재량은 1.2TWh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2026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약 15% 증가한 2,3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탑재량은 3TWh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기존 기대보다 완만해지면서 배터리 업체들은 수요처 다변화를 통한 생산능력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중대형 배터리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을 보완하는 신규 성장 축이다. 2025년 신규 설치된 배터리 저장설비는 112GW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출력 변동을 보완해야 하는 전력망 수요와 데이터센터의 비상·보조전원 수요가 함께 증가한 결과이다. 이에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기존 생산능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요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가격과 수명, 반복적인 충·방전 성능, 안전성이 중요하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2025년 ESS 신규 설비의 약 90%에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되었다. 리튬인산철 배터리 비중 확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과 팩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터리 화학 성분이 달라지면 전압 범위와 충·방전 특성에 맞춰 셀 상태를 추정·제어하는 부분을 다시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저장장치도 가정용과 상업용, 전력망용 등 용도에 따라 전압과 운용 조건이 달라 적용처별 회로·기구 설계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성장은 셀뿐만 아니라 해당 셀의 용도에 맞춘 배터리관리시스템 및 팩의 개발 수요를 동반한다.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NEF,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셀 업체의 에너지저장장치
생산기반 확장은
배터리관리시스템-팩 업체의 신규
프로젝트 참여 기회로 연결**

ESS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도 생산기반을 에너지저장장치용으로 확장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기존 전기차용 생산설비와 합작공장을 ESS용으로 전환하여 현지 생산거점을 5곳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50GWh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폴란드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현지 국영 전력회사의 262MW-981MWh 규모 프로젝트에 LFP 셀과 컨테이너형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셀 업체의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확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과 팩 업체의 신규 프로젝트 참여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적용처별로 회로와 기구를 알맞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셀 업체가 외부 협력사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제품별 설계 변경과 물량·양산 일정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팩 업체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북미 ESS 생산공장 현황



주: 2026년 3월 기준, 자료: LG에너지솔루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향후 팩 업체의 사업 기회는
중대형 프로젝트의 수주와 신규
적용처에 대한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로봇도 배터리팩의 신규 적용처로 부상하고 있다. 이동형 로봇은 제한된 공간과 무게 안에서 장시간 구동과 순간적인 고출력을 구현해야 하므로 제품별로 맞춤형으로 배터리 셀과 팩을 설계해야 한다. 다만, 로봇용 배터리는 아직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개별 프로젝트의 물량 규모도 제한적이다. 단기적으로 대규모 양산 수요를 기대하기보다는, 제품마다 크기, 출력, 작동시간이 달라 개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로봇용 배터리팩 시장에서는 대량생산 규모보다 제품별 회로·기구 설계와 다품종 양산 대응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소형 팩 수요는 IT 정보기기 출하량에 연동되는 반면, 중대형 팩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확대, 로봇 등 신규 응용처의 등장에 연동될 전망이다. 배터리팩 적용 기기가 다양해질수록 배터리팩 업체에는 단순 조립보다 제품별 배터리관리시스템과 기구 설계, 인증 및 양산 대응 역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향후 배터리팩 업체의 사업 기회는 중대형 프로젝트의 수주와 신규 적용처에 대한 대응력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포인트

1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 성장 기대

기존 소형 배터리팩 중심의 사업 영역이 중대형 제품으로 확장되면서, 2026년부터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2026년 이후 확대될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은 세부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팩, ESS용 BMS, 로봇용 배터리팩 제품 등 3가지인데, 이를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4Q26부터 L사 셀을 적용해

중국 완성차용 배터리팩 공급 예정

1) 전기차용 배터리팩 사업

전기차용 배터리팩 제품 관련, 글로벌 배터리 기업 L사와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이랜텍은 4Q26부터 L사의 배터리 Cell 제품을 적용, 중대형 배터리팩을 제조하여 중국 완성차 기업용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다. 반영될 관련 매출액은 2026F 연간 161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랜텍은 기존에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을 일부 진행해 왔으나, 이는 삼성SDI와의 전동공구, 노트북, 청소기용 배터리팩 제품에 국한되었다. 4Q26부터 본격화될 중대형 배터리팩은 전기차용으로,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물량 증가가 기대된다.

이랜텍은 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기업들과도 중대형 배터리팩 납품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즉 이번 공급은 이랜텍 입장에서 전기차용 배터리팩 첫 공급으로, 레퍼런스 확보는 향후 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진행 예정인 전기차용 배터리팩 사업



- 中 완성차 업체 (C사)
 - 50~60GWh급 개발 중
 - 유럽 공급 예정(26년 하반기)
 - * 국내 L사 46xx Cell 적용
- 완성차 업체 (H사, A사, M사)
 - 공급 가능 협의 중
- 하이브리드, PHEV 배터리팩(H사, S사)

자료: 이랜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SS용 BMS는 1Q26부터 L사향

공급을 시작, 모듈팩 사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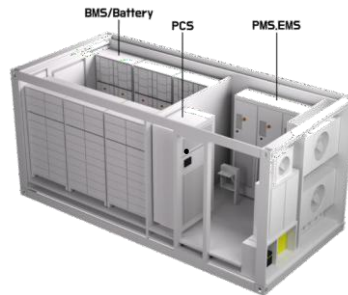
확대 여지 보유

2) ESS용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사업

이랜텍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 L사향으로 1Q26부터 가정 및 상업용 ESS용 BMS를 공급하고 있다. 과거 국내 가전기업 L사에 가정용 ESS 배터리팩을 공급했으나, 고객사의 ESS 사업 철수로 기존 공급이 종료되면서 2025년 관련 매출은 2억 원에 그쳤다. 2026년 초 신규 고객사향 BMS 공급이 시작되며 1분기 약 15억 원의 매출을 인식했으며, 공급 물량 증가에 따라 향후 빠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2026년 ESS용 BMS 관련 매출액 전망치로 141억 원을 실적 추정에 반영했다.

제품 초도 물량은 50~100V BMS 제품인데, 향후 500V BMS 제품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고객이 제품력에 만족할 시 동 사업은 ESS 배터리모듈/팩 사업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ESS용 BMS 사업



- **국내 최대 Cell 기업(L사)**
 - 가정, 상업용 Light BMS 개발(50~100V)
 - 500V 개발 목표
 - Module, Pack 확대 기대
 - 전력망용(Grid) ESS BMS 생산 확대
 - 26년 1분기 매출 : 15억원

자료: 이랜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로봇용 배터리팩은

서빙·요양·AMR용으로 개발이

진행되며 중장기 신성장동력으로

부상 기대

3) 로봇용 배터리팩 사업

이랜텍은 중소형 배터리팩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고, 전술한 바와 같이 2026년부터는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을 본격 확대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로봇용 배터리팩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동사는 현재 미국 모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B사)향으로 서빙 로봇용 배터리팩 및 충전기를 소량 공급하고 있다(관련 수치는 미공개). 또한, 국내 가전 기업 S, L사와 함께 요양/반려 로봇용 배터리팩을 개발하고 있고, AMR(자율주행물류로봇)용 배터리팩 표준화 개발도 고객들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국내 모 대형 유통사의 요청으로 AMR용 배터리팩을 개발하는 것도 협의하고 있다. 2026년 당장 매출액으로 반영될 로봇용 배터리팩 사업 규모는 미미하겠으나, 이미 관련 매출액이 소량 발생하기 시작한 점은 의미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본격화될 시에는 신성장동력으로서 그 역할과 의미가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용 배터리팩 사업



- **美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 (B사)**
 - 서빙 로봇 배터리팩, 충전기 공급
- **국내 최대 가전 기업 (S, L사)**
 - 컴패니언로봇 개발 진행
 - AMR로봇 BP 표준화 공동 개발 진행
- **美 로봇 전문 기업 (B사)**
 -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팩 개발 진행
- **국내 유통사**
 - AMR, AGV, ACR 배터리팩 개발 검토

자료: 이랜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렇듯 새로이 진행될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은 기존 배터리 Cell 협업사인 삼성SDI가 아닌 L사인 점이 의미 있다. 즉 성장성 확대 측면에서 이러한 이랜텍의 소싱 다변화 및 판매 다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 안정적 성장 기대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은
안정적 성장으로 신성장동력을
지원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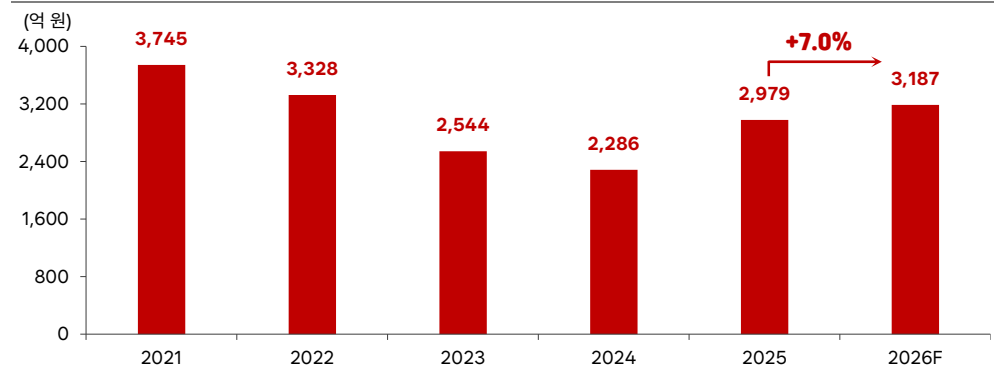
이랜텍 주력 사업인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된다(아래 그래프 참조). 즉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은 중대형 배터리팩 등 신성장동력 부문을 지원하는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동 사업 관련 주 고객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내 1, 2위를 애플과 다투는 전통의 스마트폰 강자이다. 삼성 전자 스마트폰의 케이스 부품은 현재 동사와 인탑스, 모베이스, 삼광(비상장) 4개사가 경쟁하며 납품하는 체제이다. 과거에는 인탑스가 전체 삼성전자 스마트폰 케이스 물량의 최대 40% 이상을 공급하기도 했으나, 최근 인탑스 납품 물량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 거점은 최근 베트남, 인도로 재편되었다. 중국 제조 거점은 수년 전 삼성전자가 철수를 단행했다. 삼성전자 베트남 제조법인향으로는 위 4개 케이스 제조사가 모두 납품 중이고, 삼성전자 인도 제조법인향으로는 인탑스를 제외한 위 3사가 케이스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 케이스 물량 내 업체별 배분 비중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사업 성격상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랜텍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 내에서 메이저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참고로 이랜텍의 휴대폰 배터리 및 케이스 조립라인은 21개로 베트남에 12개, 인도에 9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능력(Capa)은 연간 7,080만 개이다. 이는 원론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 연간 스마트폰 판매 물량의 약 1/4을 조금 넘는 규모를 커버할 수 있다.

이랜텍 휴대폰용 케이스 매출액은 2025년 2,9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3% 성장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70% 성장한 3,187억 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6년에는 A시리즈 등 중저가 케이스 물량을 전년 대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랜텍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 연도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이랜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review

**2025년 매출액 7,532억
원(+35.5% YoY), 영업이익
432억 원(+168.1% YoY)**

2025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7,532억 원, 432억 원이었다.

연간 매출액은 전년(5,560억 원) 대비 35.5% 성장한 7,532억 원을 기록했다. 2024년 부진했던 전자담배 디바이스 사업과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 실적이 회복된 점과 충전기 사업이 오랜만에 성장한 점 등에 주로 기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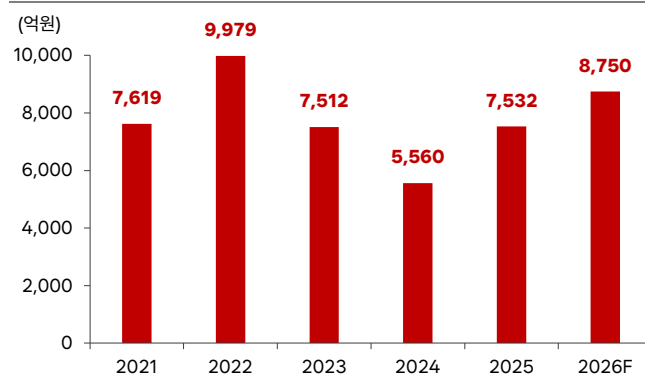
사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았다.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 매출액은 2024년 2,286억 원에서 2025년 2,979억 원으로 30.3% 증가했다. 인도법인 중저가 수요가 견조하여 이의 수혜를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바일폰 배터리팩 사업 매출액은 2024년 662억 원에서 2025년 723억 원으로 9.2% 증가했다. 수요는 견조했으나 Cell 수급이 제한되어 기대만큼은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전자담배 디바이스와 전자담배 카트리지 사업은 2024년 1,017억 원, 91억 원에서 2025년 2,049억 원, 185억 원으로 각각 101.4%, 103.7% 급성장했다.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경우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로 생산지 이전에 따른 2Q25 이후 생산성 증대 효과와 신규제품 3종 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경우 주 고객이 2024년까지는 경쟁사에게 카트리지 생산을 전담토록 했으나, 2025년부터 이랜텍에 제조 할당을 증가시켜 매출액이 급증했다.

ESS 배터리팩, BMS 사업 매출액은 2024년 98억 원에서 2025년 2억 원으로 급감했다. 특정 물량 공급이 종료되며 일시적으로 관련 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충전기 사업 매출액은 2024년 9억 원에서 2025년 134억 원으로 급증했는데, 국내 유명 중저가 소매유통사 D사향 수요가 급증했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2종향으로 충전기 재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전동공구 배터리팩 사업 매출액은 2024년 88억 원에서 2025년 149억 원으로 69.8% 증가했다. 이는 주 고객인 삼성SDI의 주문 증가에 기인했다. 기타 사업 매출액의 경우 2024년 1,309억 원에서 2025년 1,311억 원으로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161억 원) 대비 168.1% 크게 성장한 43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규모가 35.5% 성장한 만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고, 불필요한 일부 인력의 감축과 설비 자동화 셋업을 통한 제조 생산성 개선도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사 영업이익률은 2024년 2.9%에서 2025년 5.7%로 2.8%p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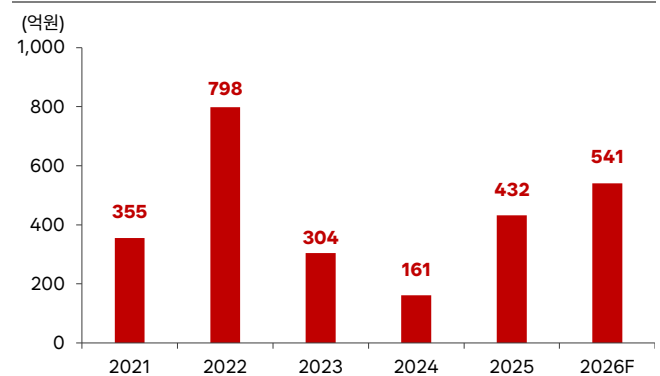
참고로 2025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은 각각 86.6%, 7.6%를 보여 2024년 대비 매출원가율은 2.0%p 개선되고, 판관비율은 0.9%p 개선되었다. 2024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은 각각 88.6%, 8.5%였다. 절대금액으로 보면, 매출원가의 경우 2024년 4,928억 원에서 2025년 6,524억 원으로 1,596억 원 증가했고, 판관비의 경우 2024년 471억 원에서 2025년 576억 원으로 105억 원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다. 전자담배 디바이스 사업과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 충전기 사업 등의 성장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매출원가도 동반하여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판관비의 경우 증가세가 덜했다.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이랜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이랜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F 실적 전망

2026F 매출액

8,750억 원(+16.2% YoY),

영업이익

541억 원(+25.2% YoY)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8,750억 원(+16.2% YoY), 541억 원(+25.2% YoY)으로 예상한다.

2026년 매출액을 제품별로 보면,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3,187억 원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산업 전반의 원가 부담 상승으로 2026년 스마트폰 세트 및 관련 케이스 수요는 2025년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완만할 수 있는 환경인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동사의 경우 A시리즈 위주 중저가 라인업 관련 수주가 견조하여 전년에 이어 성장 추세는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폰 배터리팩 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80.0% 증가한 1,301억 원으로 전망한다. 스마트폰 세트 및 케이스 분야와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예상하는데, 이는 전년 기저효과가 있으며 삼성전자 인도법인 관련 소싱 물량 급증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인도법인향 삼성SDI의 Cell 인종 물량이 2026년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동사도 삼성SDI 물량 증가와 동반하여 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담배 디바이스, 카트리지 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2.0%, 1.0% 소폭 증가한 2,090억 원, 187억 원으로 예상한다. 2025년에 기저효과가 컸기에 2026년에는 증분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한다.

ESS 배터리팩, BMS 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51억 원을 기대한다. 연초부터 BMS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관련 연간 매출액과 기타 ESS 배터리팩 매출을 합산하여 보수적인 수치인 151억 원(BMS 141억 원, 배터리팩 10억 원) 매출액을 전망하였다.

충전기 사업 매출액은 전년(134억 원)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F 연간 매출액 추정치는 133억 원이다. 국내 유명 소매유통사(D사)향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기대되나, 추가적인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을 견지했다. 전동공구 배터리팩 사업 매출액도 전년(149억 원)과 유사한 150억 원으로 추정했다. 2025년에 기저효과로 큰 성장이 있었기에 보수적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2026년부터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인 전기차용 배터리팩 사업 매출액은 161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4Q26부터 1개사향으로 매출이 시작될 전망인 만큼 수치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2027년 이후 전기차용 배터리팩 사업의 높은 성장성은 기대된다.

기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성장한 1,389억 원을 전망한다. 와이어하네스, 평선보드, 스마트 클래스, 의료기기 등 일부 제품의 물량 증가 가능성을 고려했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2% 성장한 541억 원으로 전망하였다. 전사 매출액 성장에 따른 이익 성장이 동반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부 제품믹스도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전기차용 배터리팩 등 일부 신제품 매출을 시작하는 첫해이니만큼 수익성 개선의 폭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 2026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0.5%p 개선된 6.2%로 예상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7,619	9,979	7,512	5,560	7,532	8,750
① 휴대폰용 Case	3,745	3,328	2,544	2,286	2,979	3,187
② 모바일폰 Battery Pack	386	623	1,456	662	723	1,301
③ 전자담배 디바이스	1,011	3,041	1,666	1,017	2,049	2,090
④ 전자담배 카트리지	-	-	-	91	185	187
⑤ ESS Battery Pack, BMS	-	-	314	98	2	151
⑥ 충전기	612	439	66	9	134	133
⑦ 전동공구 Battery Pack	305	358	49	88	149	150
⑧ 전기차용 Battery Pack	-	-	-	-	-	161
⑨ 기타	1,560	2,190	1,418	1,309	1,311	1,389
영업이익	355	798	304	161	432	541
지배주주순이익	339	547	167	4	267	316
YoY 증감률						
매출액	21.8	31.0	-24.7	-26.0	35.5	16.2
영업이익	137.3	124.8	-61.8	-47.1	168.1	25.2
지배주주순이익	흑전	61.3	-69.5	-97.9	7,414.4	18.4
영업이익률	4.7	8.0	4.1	2.9	5.7	6.2
지배주주순이익률	4.5	5.5	2.2	0.1	3.5	3.6

자료: 이랜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6F PER 7.3배로 거래 중
**2026F PER 기준 코스닥 대비
할인 거래 중**

2026년 8월 6일 기준 이랜텍 시가총액은 1,965억 원 수준이다. 2026년 이랜텍의 예상 PER은 7.3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22.8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랜텍은 스마트폰 및 전자담배 관련 부품 전문기업으로, 향후 자동차/ESS/로봇 부품으로 사업 영역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IT기기 부품 및 전자담배 관련 동사와 유사한 상장 기업군에는 모베이스, 아이티엠반도체, 인탑스, 파트론 등이 있다. 동사의 Peer로 인탑스, 파트론을 선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모베이스는 컨센서스 부재, 아이티엠반도체의 경우 영업적자 지속 등 요인으로 Peer에서 제외).

Peer로는 인탑스, 파트론 선정

2026년 비교 3개사의 PER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다(동사 PER 7.3배 VS 인탑스 PER 10.8배 VS 파트론 PER 8.8배).

인탑스는 이랜텍 대비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다. 인탑스는 스마트폰 외장재를 기반으로 IT디바이스,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최근 설계부터 양산까지 담당하는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사업자로 변모하고 있다. 서비스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의 서빙로봇을 수년간 위탁 생산하며 로봇 전용 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누적 2만 대 이상의 로봇 생산 이력을 확보한 국내 로봇 분야 EMS 업체라는 점에서, 로봇 등 미래산업 관련 시장 개화에 따른 물량 확대 기대가 밸류에이션에 선반영되어 있는 점이 할증의 주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파트론도 이랜텍 대비 소폭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다. 파트론은 삼성전자를 핵심 고객사로 카메라모듈과 센서 패키지를 공급하는 부품 전문기업으로, 최근 전장용 카메라와 전자담배 부품 등 스마트폰 외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성숙기에 진입한 스마트폰 부품 사업만으로는 성장성이 제한적이나, 전장 부품 등 신규 전방 시장향 매출 확대 기대가 멀티플에 반영되었다.

Peer 2개사의 할증은 공통적으로 로봇·전장 등 신규 전방 시장으로의 확장 기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 역시 스마트폰·전자담배 부품 사업을 기반으로 ESS, 전장, 로봇 부품 등 다수의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이다.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는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Peer 대비 할인을 받고 있어, 신사업 성과가 실적으로 확인되는 시점 전후로는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 (원, 달러)	시가총액 (십억원, 백만달러)	매출액(십억원, 백만달러)			PER(배)			PBR(배)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코스피	6,296	5,025,510	3,712,325	3,917,205	4,093,011	11.3	15.4	6.2	0.8	1.3	1.5
코스닥	802	440,555	332,644	361,445	128,417	211.4	112.4	22.8	1.5	2.1	2.6
이랜텍	7,770	196.5	556	753	875	3,014.3	10.1	7.3	0.5	0.9	0.7
인탑스	18,200	300	615	591	611	13.3	21.3	10.8	0.4	0.5	0.4
파트론	5,570	279	1,486	1,350	1,491	7.6	11.8	8.8	0.7	0.7	0.5
동종업종 평균						10.5	16.5	9.8	0.5	0.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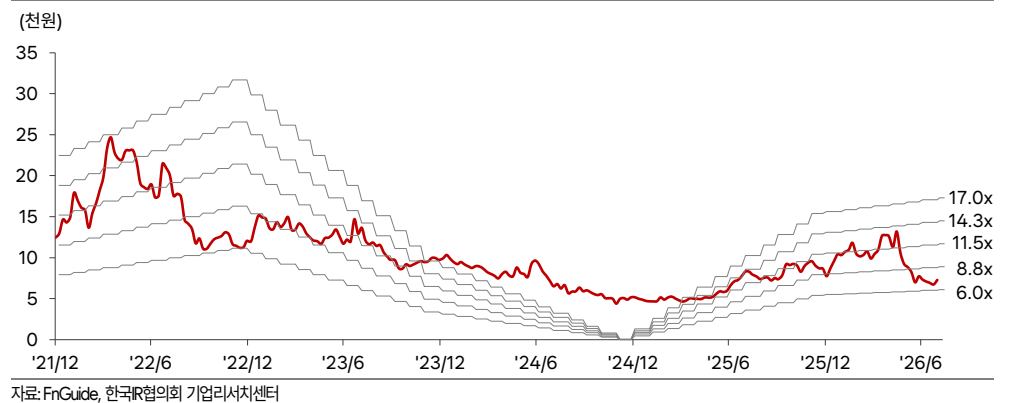
주: 2026년 08월 06일 종가 기준, 자료: FnGuide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가 약세는 실적 측면이 아닌
코스닥 소외 및 차익 실현 영향으로
판단되며, 전기차용 배터리팩·ESS
BMS 성과 확인 시 관심도 상승
기대**

이랜텍 주가는 2025년 연간 78.0% 상승했다. 2024년 연간 주가가 48.8% 하락한 것에 대한 낙폭과대 반등 측면과 실적 개선(2025년 연간 영업이익 432억 원을 기록, 전년 영업이익 161억 원 대비 168% 증가) 측면을 반영한 결과였다. 2026년 이랜텍 주가(8/6 현재)는 연초 대비 14.4% 하락했다. 주가는 연초 이후 상승하여 5/21(주가 13,450원)까지 48.1% 상승하기도 했으나, 5/22 이후 주가가 하락 반전하여 8월 6일 기준 주가는 7,770원으로 약세를 보였다. 1Q26 매출액 2,352억 원, 영업이익 175억 원을 시현하여 전년 동기 1Q25 매출액 1,211억 원, 영업이익 -6억 원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인 바, 실적 측면에서 주가가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코스닥 지수가 6, 7월 각각 -14.8%, -21.4%를 보이는 등 코스닥 시장의 부진 및 소외현상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영향이 주가 약세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랜텍이 4Q26 예정된 전기차용 배터리팩의 첫 공급 개시나 ESS용 BMS, ESS 배터리모듈팩 사업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동사에 대한 시장 관심도는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서빙·요양·AMR용 로봇 관련 배터리팩 고객사 및 물량 확대가 진행된다면 신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랜텍 PER 밴드



리스크 요인
1 고객사 편중

**삼성전자/삼성SDI 매출 비중이
약 58%로 고객 집중도가 높으나,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 확대 시
고객 쏠림은 완화될 전망**

이랜텍 고객 비중은 삼성전자/삼성SDI향으로 치우쳐 있다. 삼성전자/삼성SDI에 대한 2025년 기준 전사 매출액 비중은 기업개요 챕터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약 58%이다. 휴대폰용 케이스, 모바일폰 배터리팩 사업 등의 경우 주요 고객의 제품 판매 실적과 동사 실적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사는 고객군을 넓혀 리스크를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랜텍은 신성장동력으로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을 점진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공략 분야는 기존 전동공구, 노트북, 청소기용 중대형 배터리팩 제품과는 다른 ESS, 전기차용 배터리팩 제품이다. 기대대로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할 시 고객 쏠림은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로봇용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의 경우 잠재 고객들이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품군도 넓어 동사 중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9,979	7,512	5,560	7,532	8,750
증가율(%)	31.0	-24.7	-26.0	35.5	16.2
매출원가	8,552	6,671	4,928	6,524	7,520
매출원가율(%)	85.7	88.8	88.6	86.6	85.9
매출총이익	1,427	840	632	1,007	1,230
매출이익률(%)	14.3	11.2	11.4	13.4	14.1
판매관리비	629	536	471	576	689
판매관리율(%)	6.3	7.1	8.5	7.6	7.9
EBITDA	1,056	560	388	694	880
EBITDA 이익률(%)	10.6	7.5	7.0	9.2	10.1
증가율(%)	78.8	-47.0	-30.7	78.9	26.9
영업이익	798	304	161	432	541
영업이익률(%)	8.0	4.1	2.9	5.7	6.2
증가율(%)	124.8	-61.8	-47.1	168.1	25.2
영업외손익	-141	-93	-112	-200	-205
금융수익	417	243	219	191	180
금융비용	532	302	227	372	380
기타영업외손익	-26	-34	-103	-18	-5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10	9	10	7	10
세전계속사업이익	666	220	59	240	346
증가율(%)	86.8	-73.0	-90.8	1,388.5	44.2
법인세비용	103	9	13	-27	30
계속사업이익	564	212	46	267	316
중단사업이익	-17	-45	-43	0	0
당기순이익	547	167	4	267	316
당기순이익률(%)	5.5	2.2	0.1	3.5	3.6
증가율(%)	61.3	-69.5	-97.9	7,414.4	18.4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547	167	4	267	316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01	701	795	346	497
당기순이익	547	167	4	267	316
유형자산 상각비	253	251	220	254	331
무형자산 상각비	5	4	7	8	9
외환손익	127	33	34	93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467	283	494	-231	-184
기타	36	-37	36	-45	2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49	-556	-788	-691	-50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3	-12	-5	-4	-14
유형자산의 감소	56	122	13	58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694	-652	-705	-620	-470
기타	-14	-14	-91	-125	-2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13	-263	-204	77	81
차입금의 증가(감소)	556	-220	-182	57	11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43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29	-43	-23	-23	-29
기타	-14	0	1	0	0
기타현금흐름	-6	-6	-7	-10	-33
현금의증가(감소)	359	-124	-204	-278	40
기초현금	630	989	865	661	383
기말현금	989	865	661	383	423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3,353	2,482	2,399	2,891	3,337
현금성자산	989	865	661	383	423
단기투자자산	24	19	49	52	61
매출채권	1,047	658	908	1,203	1,397
재고자산	1,052	686	455	990	1,150
기타유동자산	241	252	326	263	306
비유동자산	2,717	3,130	3,396	3,870	4,034
유형자산	2,094	2,430	2,633	2,945	3,084
무형자산	57	68	59	57	58
투자자산	169	188	185	179	203
기타비유동자산	397	444	519	689	689
자산총계	6,070	5,611	5,796	6,762	7,371
유동부채	3,064	2,497	2,666	3,330	3,641
단기차입금	1,945	1,591	1,405	1,266	1,376
매입채무	915	417	539	1,029	1,195
기타유동부채	204	489	722	1,035	1,070
비유동부채	406	377	270	338	350
사채	0	0	0	30	30
장기차입금	231	117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75	260	270	308	320
부채총계	3,470	2,873	2,936	3,668	3,991
자배주주지분	2,601	2,738	2,860	3,093	3,380
자본금	146	146	146	146	146
자본잉여금	978	978	978	992	992
자본조정 등	-14	-14	-14	-14	-14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83	-173	-29	-44	-44
이익잉여금	1,674	1,801	1,778	2,013	2,300
자본총계	2,601	2,738	2,860	3,093	3,380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6.1	17.7	3,014.3	10.1	7.3
P/B(배)	1.3	1.1	0.5	0.9	0.7
P/S(배)	0.3	0.4	0.3	0.4	0.3
EV/EBITDA(배)	3.9	6.9	6.9	6.1	4.5
배당수익률(%)	1.3	0.8	1.6	1.1	1.3
EPS(원)	1,860	563	2	903	1,071
BPS(원)	8,934	9,405	9,824	10,626	11,611
SPS(원)	34,282	25,805	19,101	25,873	30,057
DPS(원)	150	80	80	100	100
수익성(%)					
ROE	23.0	6.3	0.1	9.0	9.7
ROA	9.6	2.9	0.1	4.2	4.5
ROIC	22.8	6.6	2.4	10.4	11.3
안정성(%)					
유동비율	109.5	99.4	90.0	86.8	91.6
부채비율	133.4	105.0	102.7	118.6	118.1
순차입금비율	49.9	48.4	48.3	62.0	58.6
이자보상배율	12.9	2.8	2.2	4.0	4.7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8	1.3	1.0	1.2	1.2
매출채권회전율	9.9	8.8	7.1	7.1	6.7
재고자산회전율	9.2	8.6	9.7	10.4	8.2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랜텍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8.10	이랜텍-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IT부품 강소기업
2023.03.27	이랜텍-2023년 모멘텀은 미국 가정용 ESS 배터리팩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권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r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가치있는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